

고. 다만 바느질이나 음식 만드는 일을 주로 해 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돈우는 옥영을 더욱 불쌍히 여기고 잘 보살피 주었다. 그리고 옥영에게 사간(沙干)이라는 새 이름을 지어 주었다. 전쟁이 끝나고 돈우는 중국의 복건성과 절강성 지방 일대를 배를 타고 다니면서 물건을 팔았는데, 옥영에게는 뱃일을 돕게 하였다.

**이때** 최척은 중국 소흥부\*에 살고 있었는데, 여유문과 의형제를 맺었다. 여유문은 자기 누이동생과 최척을 맺어 주려고도 했으나 최척이 끝내 사양하였다.

“저는 온 집안이 왜적에게 변을 당해 아버지와 아내의 생사(生死)도 모르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상복을 벗을 수가 없을지도 모르는 형편인데, 어찌 편안하게 아내를 얻겠습니까?”

여유문은 이런 최척을 의롭게 여기고 다시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러나 그해 겨울, 여유문이 병들어 죽었다. 또다시 ㉠의탁할 곳이 막막하게 된 최척은 강호(江湖)를 떠돌며 두루 명승지를 유람하였다. 용문과 우혈을 찾아보고 동정호를 유람하고 악양루와 고소대에도 올라보았다. 이렇듯 중국의 유명한 산과 강을 다니며 노래 부르고 시를 읊조리며 구름과 물 사이를 배회하다 보니 최척에게는 어느덧 속세를 떠난 듯한 풍모가 생기게 되었다. 그러던 중 최척은 해섬도사 왕용이라는 사람에 대해 소문을 듣게 되었다. 그는 청성산\*이란 곳에 은거하며, 금련단\*을 만들고 대낮에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신비한 재주가 있다고 하였다. 최척은 세상에 뜻을 버리고 촉(蜀)의 땅으로 찾아가 신선이 되는 법을 배우려고 마음먹었다.

마침 주우(朱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호(號)는 학천(鶴川)이고, 집이 항주 용금문 안에 있었다. 그는 경전과 역사서를 많이 읽어 모르는 것이 없었으나, 벼슬을 하지 않고 강사를 하며 살고 있었다. 또한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의로운 기상이 있었다. 최척과 예전부터 절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는데, 최척이 촉의 땅으로 들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술을 가지고 찾아왔다. 반쯤 취했을 즈음, 주우가 먼저 최척에게 말했다.

“여보게,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군들 오래 살고 싶어 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고금천하(古今天下)를 통틀어 본들 어찌 그런 이치가 있겠는가? 우리에게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된다고 환약이나 먹고 굶주림을 견디며 스스로를 괴롭히면서 산 귀신과 이웃이 되려 하는가? 자네, 그러지 말고 나와 함께 배를 타고 오나라와 월나라를 오가면서 비단과 차를 팔며 남은 생애를 즐기는 건 어떠한가? 이 또한 세상을 통달하는 한 방법일 걸세.”

주우의 말에 최척은 마음이 상쾌해지며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1600년 봄, 최척은 주우를 따라 상선을 타고 무역을 하다 안남\* 어느 지역에 배를 정박하게 되었다. 이때 일본 배 십여 척이 같은 항구에 정박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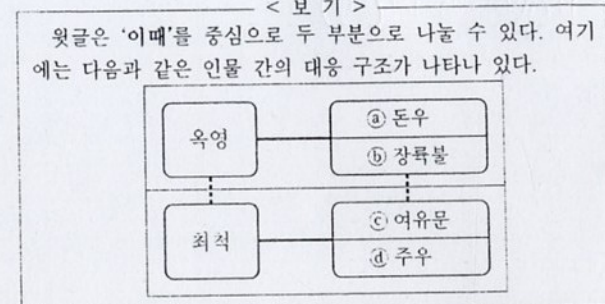
- 조위한, 「최척전」 -

\* 장륙불: 일 장 옥 척의 불상.  
\* 소흥부: 중국 절강성에 위치.  
\* 청성산: 중국 사천성에 있는 도교의 성지.  
\* 금련단: 장생불사(長生不死)의 황금 환약.  
\* 안남: 지금의 베트남.

37. 윗글의 인물이 이동한 경로를 정리해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85%

인물	이동 경로
옥영	일본 나고야에 머무름. .... ①
	→ 중국 복건성과 절강성 일대를 다님. .... ②
최척	중국 소흥부에 머무름. .... ③
	→ 동정호, 악양루 등의 명소를 들름. .... ④
	→ 청성산에 들어감. .... ⑤

38.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80%



- ① ③, ④가 지닌 품성은 옥영과 최척의 조력자 역할을 수행해 내기에 적절한 인물 설정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옥영이 ③에게 '남자인 체'하는 것과 최척이 ④의 호의를 거절한 것은 이후에 전개될 사건과 연관이 있겠군.
- ③ <보기>에서 설명한 구성은 전쟁으로 인해 분리되어 있는 옥영과 최척의 삶을 함께 보여 주는 데 효과적이겠군.
- ④ '삶에 뜻을 잃은' 옥영과 '세상에 뜻을 버린' 최척에게 삶의 의욕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③과 ④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군.
- ⑤ <보기>에서 설명한 대응 구조는 옥영과 최척 사이에 잠재되어 있는 갈등을 공간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장치라 할 수 있군.

39. ㉠과 같은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63%

- ① 사고무친(四顧無親)      ② 다기망양(多岐亡羊) 10%
- ③ 전화위복(轉禍爲福)      ④ 좌고우면(左顧右盼) 21%
- ⑤ 호사다마(好事多魔)

\* 점수 따고 돌아가는 문제!!

40. [A]에 드러난 '주우'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89%

- ① 자신의 실리를 감추고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다.
- ② 자신의 체험을 들려주며 상대방을 위로하고 있다.
- ③ 자신의 처지를 내세워 상대방의 동조를 구하고 있다.
- ④ 윤리적 명분을 들어 상대방에게 따끔한 충고를 하고 있다.
- ⑤ 상대방의 생각이 그릇된 것임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제안을 하고 있다.

자신과 장시래보자!



[대화사] 국어

제2수 연약하고 연약한 자에게 어찌 꽃을 피우게 하고 만지않았더니  
눈물 때 피웠다고 한 약속을 능히 지켜 두세 송이 피었다.  
꽃을 잡고 나를 완성해 그란 향차 방울 피우구나.

제3수  
영유같이 깨진 자레의 옥같이 고운 지일여, 눈속에 피어난대  
그런 향기를 풍겨서 저택을 거러니  
아비도 환향(黃昏) 4 방울 눈물 감을 제자은 의너분이 가라.

제4수  
눈물때꽃 피우게하려니 너(매화) 과연 피었나.  
황혼에 같이 피니 그림자도 등향하구나.

제5수  
황혼에 돈 많은 때 내사만 만날 지을 하였더니?  
정안에서 잠든 꽃이 향기를 풍겨서 맞이하구나.  
내어찌 곁과 매화가 빛나를 물처럼 가라.

# 국어 영역(A형)

[41 ~ 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어리고 성긴 매화(梅花) 나를 믿지 않았더니  
눈 기약(期約) 능(能)히 지켜 두세 송이 피었구나  
촉(燭) 잡고 가까이 사랑할 때 암향부동(暗香浮動) 하더라  
빙자옥질(氷姿玉質)이여 눈 속에 너로구나  
가만히 향기(香氣) 놓아 황혼월(黃昏月)을 기약(期約)하니  
아마도 아치고절(雅致高節)은 너뿐인가 하노라  
눈으로 기약(期約)터니 네 과연(果然) 피었구나  
황혼(黃昏)에 달이 오니 그림자도 성기구나  
청향(清香)이 잔(盞)에 띄으니 취(醉)코 놀려 하노라  
황혼(黃昏)에 들은 달이 너와 기약(期約) 두었더니  
합리(閣裡)에 자던 꽃이 향기 놓아 맞는구나  
내 어찌 매월(梅月)이 벗 되는 줄 몰랐던고 하노라

*Handwritten notes:*  
- 2수: 눈이 터지면 꽃을 피우지 않겠어 약속  
- 3수: 제대라. 양키기 작문  
- 4수: 시조, 배경  
- 5수: 매화가 벗인 은구사  
- \* 암향부동: 그윽한 향기가 은근히 떠돌.  
- \* 합리: 방 안.

[43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만형 우리들이 가 버리면 여기 남은 형제자매 그 누가 보살펴 주겠소?  
둘째 우리 몰라 못 가겠소.  
노파·남자3 몰라 못 간다니.....  
둘째 우리 모친 어느 곳에 계시는지 몰라 못 가겠소.  
노파·남자3 살았으면 이승 있었고 죽었으면 저승 있겠지.  
막내 우리 당장 떠나겠소. 떠날 때가 분명하듯 돌아올 때 분명하게 기약이나 정합시다. 십 년 기약 어떻게겠소?  
노파·남자3 (치마에 모은 노갯돈을 막내에게 준다.) 십 년 기약 그게 좋군! 자네들이 그때까지 꼭 찾아서 데려오게.  
만형 막내 네가 바보구나! 노갯돈을 받았으니 안 떠날 수 있겠느냐!  
둘째 (만형을 붙잡고 탄식하며) 차마 못갈 이승 길을, 몰라 못갈 저승길을 울며불며 가야겠네!  
막내 (일곱 자식들에게 각별인사를 한다.) 몸 성하들 잘 계시오. 우리 어머니 꼭 찾아서 모셔올 테요.  
만누나 장하구나. 우리 막내! 십 년 기한 차기 전에 꼭 찾아서 모셔 오나라!  
만형 (일 자식들이 세 자식들과 일곱 자식들로 나뉘 이별한다. 만형, 둘째, 막내는 무대 밖으로 퇴장한다. 구경꾼들도 퇴장한다. 일곱 자식들은 무대 후면으로 물러간다. 만누나는 무대 가운데서 세 자식들이 나간 방향을 향하여 손을 흔든다. 이별의 서러움이 역력한 모습이다. 만누나, 입었던 누더기 옷을 벗어 관객석 쪽으로 다가와서 말한다.)  
만누나 나는 자꾸만 손을 흔들었어요. 큰오빠, 작은오빠, 막내가 멀리 멀리 사라져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건 옛날 이야기지만, 사실은 나 자신의 체험이기도 하죠. 가난한 어린 시절, 나의 슬픈 기억 속에는, 가족과의 이별이 있어요. 노오란 먼지가 바람에 휘날리던 황토길, 그 바짝바짝 메마른 황토길을 오빠들이 떠나가면서 나한테 말했어요.  
만형 울지 말고 십 년만 기다려라! 그럼 성공해서 돌아올게!  
만누나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 틈을 노려서, 도망치듯이 몰래 집을 떠나가는 오빠들..... 난 훌쩍훌쩍 울면서 손목이 떨어지러 떨어지러 흔들었죠. (누더기 옷을 다시 입고 무대 가운데로 가서 세 자식들이 떠나간 방향을 향하여 외친다.) 가는 듯이 돌아들 오소! 기다리는 마음, 미치고 달치겠네!

41.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 %
- ① 대상에 대해 예찬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② 대상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③ 영탄적 표현으로 화자의 감흥을 표출하고 있다. (12%)
  - ④ 과거와 미래를 대비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⑤ 음보를 규칙적으로 사용하여/음악적 효과를 얻고 있다.
42. <보기>를 참고하여 밑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0 %

**< 보기 >**  
「대화사」는 8수로 이루어진 연시조이다. 연시조에는 내용이나 형식 면에서 각 수를 통합하는 구성 원리가 있다. 이 작품의 경우 매화를 중심으로 통합이 이루어진다. 매화가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내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 시의 화자는 자신의 행위나 '눈', '달'과 같은 다른 자연물과의 조응으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

- ① <제2수>에서 화자는 '어리고 성긴 매화'가 꽃을 '두세 송이' 피운 것을 '눈'과의 기약을 지킨 결과라고 여기고 있다.
- ② <제2수>에서 화자가 '촉 잡고 가까이 사랑'하는 행위에 매화가 향기를 내어 조응하고 있다.
- ③ <제3수>에서 '눈'과 '달'의 조응이 이루어진 후에야 화자와 '매화' 사이에도 조응이 일어나고 있다.
- ④ <제4수>에서 '달'이 뜨자 매화가 '그림자'를 나타내고, 화자의 '잔'에도 매화의 '청향'이 차오르고 있다.
- ⑤ <제5수>에서 화자는 '합리에 자던' 매화가 일어나 향기를 내는 것은 '황혼에 들은 달'을 맞이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다.

- 43-②  
43-③  
43-④  
43-⑤  
44-②  
44-③  
44-④  
44-⑤
43. <중략>의 등장 (중략)  
만형 여기가 세 갈래 길이구나. 그동안엔 우리 함께 다녔으나. 지금부터 제각기 길을 택해 가기로 하자.  
둘째 (표지판을 소리 내어 읽는다.) 서울로 가는 길, 바다로 가는 길, 산으로 가는 길..... 형님은 어느 길로 가시려요?  
만형 이 생각 저 생각 온갖 생각을 다 해봤지만, 우리 어머니는 도망간 게 여실하다. 열 명 자식 키우느라 그 고생이 막심한데 평생 수절하기 또 얼마나 힘들었겠나? 답답한 맘 풀어보려 서울 구경 갔을 테니, 난 이쪽 서울로 가는

정신적 작용  
제시  
문해능력  
과거의 현상을 반복하여 시선에 맞게 표현하고 있다  
각장면의 즉흥적인 서정성  
화자의 심정



길을 택하겠다.

둘째 나도 별의별 생각 다 했소만, 아무래도 우리 어머니는 죽은 것 같소. 혹시나 바다에는 용궁 있어 저승과 통한다 하니, 나는 바다로 가는 길을 택할 테요.

말형 막내 너는 어쩔 거냐?

막내 나도 여러 생각 다 했소만, 우리 어머니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소. 나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이승도 살펴보고 저승도 살펴볼 테요. 43-㉕

말형 네 생각이 그리하면 저쪽 산으로 가는 길이 네 길이다. 이제 각자 길로 가기 전에 노갯돈을 나눠 갖자. (노갯돈을 삼등분으로 나눈 다음, 자기 뒤편에서 조금 덜어 막내에게 준다.) 막내야, 너는 어리니 노갯돈을 더 가져라.

막내 아니요, 형님. (자기 뒤편에서 덜어내 말형과 둘째에게 준다.) 나는 젊으니 형님들이 더 가지시오.

둘째 (말형과 막내에게 자기 뒤편을 덜어주며) 형님도 더 가지시고, 막내도 더 가져라. 43-㉖

말형 우애 깊은 우리 형제. 여기에서 헤어지다니..... 십 년 기한 잊지 말고 다시 만나자! 43-㉗

둘째 형님이나 잊지 마요! 막내야, 너도 잊지 마라!

말형 (길을 나눠 떠나는 둘째와 막내에게 손을 흔들어 전송하며, 목이 맨 소리로) 너희들, 어머니를 꼭 찾아 모셔 오

ST4 = 공허함

(말형, 관객석으로 다가와서 입고 있던 옷을 벗는다.)

말형 어머니를 찾다니. 그게 뭐니까? 사람이란 그 누구나 어른이 되면, 어린 시절의 어머니를 잃어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깐 어른이 되어서 찾는 어머니는 옛날과는 다른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는 권력일 수도 있고, 이상일 수도 있으며, 예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나는 내가 찾는 어머니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내 꿈은 화가였습니다. 오색 물감으로 하늘의 태양과 구름, 땅의 언덕과 나무들을 아름답게 그리고 싶었었지요. 그런데 중학교 땐 군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물론 질병이 아니라 수많은 질병들을 거느리는 장군이었어요. 고등학생 시절엔 장군보다는 정치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서는 행정학을 전공했는데, 졸업할 무렵 그 모든 것이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인생에는 예술가가 되려는 욕구, 군인이 되려는 욕구, 정치가가 되려는 욕구가 같이 있었습니다만..... 나는 배우가 되었습니다. (다시 옷을 입으며) 어머니를 찾기는 찾아야 할 텐데..... (이정표에다가 가서 방향판을 바라본다.) 서울로 가는 길, 길에 내 운명을 맡기고 떠나보자!

- 이강백 원작·김아라 연출, 「동지선달 꽃 본 듯이」 -

4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다고 할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44%

< 보기 >

이 작품에서 무대는 물리적으로 동일한 공간이지만 서로 다른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무대		관객석
A	B	C

A에서는 '옛날 이야기'가, B에서는 현재의 이야기가 교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① A에서 진행되는 이야기의 일부가 B에서 언급되면서 두 이야기가 연결되고 있다.
- ② 등장인물들이 '옷'을 입고 벗음은 A와 B의 상호 전환을 알리는 장치이다.
- ③ B에서 등장인물들은 C의 관객들과의 심리적 거리에 따라 말하는 위치를 바꾸고 있다. (=치밀감의 정도)
- ④ C의 관객들은 A와 B에서 진행되는 이야기를 종합하여 극의 의미를 구성해야 한다.
- ⑤ B에서는 A에서와는 다른 역할을 하는 등장인물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C의 관객들에게 직접 말하고 있다. (39%)

45. ㉖, ㉗를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9%

- ① '어머니 찾기'는 인간이 추구하는 욕망의 비유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 → **천경, 이상, 예술**
- ② '세 갈래 길'은 각 개인이 추구하는 욕망의 상이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 ③ 함께 다녔던 형제들의 이별은 '어린 시절의 어머니'와의 분리를 의미하는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 (30%) ○
- ④ '서울', '바다', '산'으로 가는 길은 욕망의 실현을 위해서 떠나는 인생의 길로 해석할 수 있다. ○
- ⑤ '어른이 되어서 찾는 어머니'는 욕망의 무상함을 상징하는 존재라 할 수 있다. (59%) X

44. \* **치밀감의 정도**  
 거리감 : 대상과 **알려진** 거리가 떨어져있다고 느끼는 느낌.  
 친밀감 : 거리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음**.  
 지내는 사이가 매우 친하고 가까운 느낌.

43. 윗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80%

- ① '세 자식들'은 서로 간의 우애가 돈독하다.
- ② '세 자식들'은 **기꺼이** 어머니를 찾는 길을 나선다. : **자본의 희생을**
- ③ '세 자식들'은 십 년 기약을 하고 어머니를 찾아 나선다.
- ④ '세 자식들'은 세 갈래 길에서 각자가 선택한 길로 떠난다.
- ⑤ '세 자식들'은 어머니의 행방을 두고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